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주체성의 의미

조현설(서울대)

1. 시각
2. 타자들의 연대와 서로주체성
3. 타자화된 사유, 또 다른 연대의 형식
4. 전쟁과 연대, 그리고 양식의 변화
5. 맺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2연)

1. 시각

고소설사의 흐름 속에서 17세기는 그간 대단한 주목을 받아 왔다. 17세기는 소설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독자의 확산과 대중화(통속화) 경향이 나타나며, 이와 동반하여 국문창작소설의 출현과 소설의 장편화 현상이 부각되고, 전기(傳奇)·몽유록(夢遊錄) 등 기존 소설 양식 내부의 변화 등이 발생한 고소설사의 터닝 포인트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17세기 소설사에 관한 기존의 입론들을 수용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덜 주목된 시각, 다시 말해 ‘타자’라는 시각을 통해 17세기 소설사 이해의 시야를 확장하고자 한다.

타자란 무엇인가? 타자는 자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낯선 것들을 말한다. 자아를 넘어 사회집단의 단위에서도 낯선 존재들은 있을 수 있다. 이 낯선 존재들에 대해 주체가 마음의 문을 닫아 걸 때 타자는 생성된다. 타자란 개인적, 집단적 관계 속에서 주변화된, 소외된 존재들의 이름이라 할 만하다. 그러므로 타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타자는 텍스트 내부에서는 주인공의 주변에 있는 조연들일 수도 있고, 주인공 자신일 수도 있다. 또는 텍스트를 생산한 작가의 사회적 처지를 지시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 타자란 타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생성되는 위상적 개념이다.

그런데 타자는 타인으로 존재할 때 타자의 위치를 넘어설 수 없다. 타인이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타자를 넘어 주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개체는 주체가 된다. 이를 철학자 김상봉의 용어를 빌려 ‘서로주체성’¹⁾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작품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타자들의 연대(連帶)’란 이런 서로주체성을 이루는 타자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 행위의 다른 이름이다.

그간 이런 ‘타자-연대’라는 시각으로 17세기 소설을 이해하려고 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래 <최척전(崔陟傳)>을 ‘희망과 연대의 서사’로 해석한 김현양이 그런 시도를 보여준 바 있다. 그는 “동아시아 전란에 의해 고통 받던 중민(衆民)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간애(무연자비)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인의 연대(連帶)가, 전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임을 <최척전>은 말하고 있는 것”²⁾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현양은 ‘연대’와는 달리 ‘타자’라는 개념은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타자’는 논문 결론 부분의 “타자의 불행과 고통을 동정하며 타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마음은 사실 무차별(無差別)적이어야 한다.”³⁾라는 문장에서 ‘갑자기’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문맥에서 타자는 나 아닌 남 전체를 가리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척전>의 타자는 최척·옥영과 ‘연대’했던 동아시아인들 일반, 곧 특정한 계

1)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길, 2007.

2) 김현양, 「<최척전>, ‘희망’과 ‘연대(連帶)’의 서사」, 『한국고전소설사의 거점』, 보고사, 2007, 104~105쪽.

3) 김현양, 위의 책, 104쪽.

급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지 않은 인간 일반을 지시한다. 또 동시에 연대의 바탕으로 제시된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도 보편적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질이 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 인간 일반(동아시아인)의 연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의 연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⁴⁾ 이 문제를 ‘타자들의 연대’라는 개념을 통해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최척전>은 보편적 인간의 연대가 아니라 임병양란이라는 동아시아 전란에서 소외된 ‘타자들’이 연대를 통해 어떻게 전란의 고통을 헤쳐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타자들의 연대라는 시각을 제기하는 것은 단지 <최척전> 때문만은 아니다. <최척전>이 보여주는 타자들의 연대를 통한 현실의 극복이라는 주제는 <강도몽유록(江島夢遊錄)>·<운영전(雲英傳)>과 같은 다른 17세기 소설에도 나타나는 소설사적 ‘징후’의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대를 형상화 하려고 한 작가의 의식이 단지 소설의 주제로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소설 양식 자체의 변화를 초래한 바 있다면 타자들의 연대라는 시각은 충분히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타자들의 연대와 서로주체성

2.1. <최척전>은 크게 보아 ‘결연-이산-재회’로 이야기가 짜여 있다. 이 세 단락 가운데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4) 이 문제에 대해 “민족문학사연구소 「17세기 소설사연구반」의 세미나에서 이 글을 발표하고 토론한 바 있었는데, 조현철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의 연대로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참으로 경청할 만한 견해이며 필자 또한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여유문과 돈우의 형상에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의 면모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아 이 견해를 이 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김현양, 앞의 책, 105쪽)라고 정리했다. 필자의 이 논문은 김 교수의 ‘기대’에 대한 약간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은 ‘이산’ 단락이다. 최척과 옥영의 결연은 3차에 걸친 위기를 맞게 되는데 1차는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최척이 변사정의 의병에 차출되면서, 2차는 정유재란으로 고향 남원이 함락되면서, 3차는 누루하치가 요동을 침범했을 때 최척이 명나라 장수 오세영의 서기로 뽑혀 출전하면서 발생한다. 요컨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빈발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이 최척 일가를 이산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 최척이나 옥영은 신분상으로 보면 조선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거나 소외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점은 김현양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보기를 저어(低語)한 돈우나 여유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돈우는 본래는 장사꾼이었지만 배를 모는 데 익숙하여 왜장 소서행장에 의해 선주(船主)로 선발된 인물이고, 여유문은 명군의 천총(千摠)으로 정유재란에 참여한 무관이다. 이들은 소속된 집단 내에서나 조선과의 관계에서나 약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원하지 않았던 전쟁, 다시 말해 스스로 일으키지 않았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전쟁에서 소외된 존재들, 전쟁의 타자들이다. <최척전>에는 이들 말고도 조선 토병 출신의 노호(老胡), 전쟁으로 인해 반(半)고아 상태가 된 홍도, 홍도의 아버지로 명군에서 탈영한 진위경 같은 전쟁의 타자들이 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최척과 옥영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끝내는 최척 일가를 재회로 이끄는 원동력이 이들 전쟁의 타자들 사이의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모두 죽은 것으로 오해한 최척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귀국길에 명(明)으로 데려간 여유문의 배려, 포로가 된 옥영을 죽이지 않고 왜(倭)로 데려가 사우(沙于)라는 이름까지 주고 장삿배의 항해장을 삼았던 돈우의 배려, 누루하치의 포로가 된 최척과 아들 몽석을 탈출시켜 준 늙은 오랑캐의 배려, 종기로 죽을 지경에 처한 최척을 침으로 낮게 해준 탈영병 진위경의 배려가 있었기에 이들은 자신들을 소외시킨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척과 옥영에 대한 저 타자들의 배려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돈우가 옥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그가 불교도였기 때문이기도 하겠

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옥영의 기경(機警)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고⁵⁾, 여유문이 최적의 구원자가 된 것은 최적의 명나라 말을 할 줄 알아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인물 좋고, 생각 깊고, 말타기·활쏘기에 빼어난, 유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⁶⁾ 늙은 오랑캐가 최적 부자를 탈출시켜 준 것은 같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이고, 진위경이 최적의 병을 구원해 준 것은 탈영한 그가 대구 박씨 집에 기식하다가 어떤 노파에게서 침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 타자들의 배려를 불교의 가장 순수하고 차원 높은 자비인 무연자비(無緣慈悲)의 경지라고 보고, 이 무연자비의 인간애를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적 의미라고 보는 것은⁷⁾ 적실한 해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최척전>의 타자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 모종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한 것이다. 무차별적 배려, 일방적 배려는 일상적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이다. 이 지극히 인간적인 상호간의 배려에 연대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이런 배려를 통해 전쟁에서 소외당한 <최척전>의 타자들은 서로 자기 생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2. 타자 연대의 또 다른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강도몽유록>이다. <강도몽유록>은 <최척전>과 서사 양식은 다르지만 전쟁이 만든 타자들의 집합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꽤나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강도몽유록>에 대해서는 그간 임병양란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한 양상으로 다뤄져왔고⁸⁾, 그 결과 이 작품에서 병자호란 당시 관리들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라는 주제를 도출한 바 있다.⁹⁾ 근래에는 이런 주제의식이

5) 頓于老倭卒, 不殺生, 慈悲念佛. … 頓于愛玉英機警, 惟恐見捕, 給以善衣美食, 安慰其心.(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432~433쪽. 이하 작품 원문은 같은 책에서 면수만 표시하여 인용함.)

6) 陟在義陣時, 與天兵應接酬酢之久, 稍解華語. … 陟容貌俊爽, 計慮深遠, 便於弓馬, 闢於文字, 余公愛之, 共牢而食, 同衾而寢.

7) 김현양, 앞의 책, 104쪽.

8) 장효현, 「17세기 夢遊錄의 歷史的 性格」,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출판부, 2002.

신재홍, 『韓國夢遊小說研究』, 계명문화사, 1994.

9) “패권을 추구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민족의 현실을 판단치 못하고 끊임없는 소모적 분열

구현되는 방식을 발화의 주체인 여성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¹⁰⁾로 진전된 바 있다. 그 결과 앞선 논의와는 달리 “여성 인물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남성들의 실상을 통해 당시 유교 이념의 허구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알게 된 사실,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작품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가 갖는 허구성을 우회적으로 폭로”¹¹⁾한 작품이라는 점을 지적해내기에 이르렀다. 또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앞의 견해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절의를 지키지 못한 남성만 비판되는 것이 아니라 절사하지 않은 여성도 야유된다. …이 작품은 단순히 병자호란 당시의 위정자를 비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의와 정절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다.”¹²⁾라고 지적한 연구자도 있다. 요컨대 사대부 남성들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당대 사대부 남성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수의 측면도 공존한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강도몽유록>의 주제나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해명은 대체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해석의 잉여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열네 여성의 정체, 그리고 이들의 폭로와 비판이 지닌 집합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 이들의 발화를 청취하는 위치에 있는 몽유자 청허선사(淸虛禪師)도 크게 주목되지 않은 해석의 잉여 부분이다. 요컨대 <강도몽유록>의 주제를 구현하는 열네 여성들의 어울림, 그리고 이들과 몽유자의 관계에 나타나는 타자들의 연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도몽유록>의 여성들은 이중으로 타자화된 존재들이다. 마지막 발언자인 기녀를 제외한 열세 여성들은 살아서는 사대부 가문의 처(妻)·첩(妾)·부(婦)였다. 이들은 가부장제가 강화되어 가던 17세기 조선 사회에서 성적(性的)으로 타자화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몽유록>에서는 대체로 끔찍한 몰골을 지닌 원귀의 형상으로 출현하고 있다. 흉측한 몸,

과 利己的 謀利에만 몰두한 반동적 지배세력으로 인해 민족의 수난이 야기되었음을, 이 시기 몽유록은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장효현, 앞의 책, 129쪽. *논문으로 발표된 시기는 1991년.)

10) 조혜란, 「<江都夢遊錄> 연구」, 『古小說研究』 11집, 고소설학회, 2001.

11) 조혜란, 위의 글, 350쪽.

12) 박희병, 앞의 책 533쪽.

혹은 귀신은 타자성의 징표들이다. 몸의 흥측성은 몸에 내재된 것이지만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귀신은 개인의 의식 내부에 혹은 집단의 의식 내부에 은밀히 존재하지만 일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낯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 우리의 시선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자들이다. <강도몽유록>은 이렇게 이중으로 타자화된 여귀(女鬼)들을 불러내어 발화의 장을 창조해내었다는 점에서 몽유록 양식으로서의 전무후무한 작품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 타자들의 발화와 발화의 장이 지닌 특이성이다. 이들은 사대부가의 여성들이지만 사대부 가(家) 내부에서도 신분의 고하는 실재했다. 그러나 원귀들의 발화의 장에서 이들의 생시의 위계는 해체된다. 이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나 슬픈 기색을 지닌 채 신분이나 나이의 선후를 무시하고 뒤섞여 앉아 있다.¹³⁾ 말하자면 발화의 장에서 이들은 노소고하 할 것 없이 ‘평등’한 것이다. 이 평등은 심지어 <강도몽유록>의 최후의 발언자인 기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녀는 신분상 이질적이고, 몽유자의 눈에 선녀로 보일 정도의 신체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이질적이다. 기녀는 타자들 안을 배회하는 타자다. 그런데도 기녀는 자신을 기녀라고 뽐뽐이 소개하면서 소신을 편다.¹⁴⁾ 이런 발화의 평등성은 이들이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타자들의 연대 안에서 ‘비판과 회한이 담긴 말들’¹⁵⁾이 공명을 일으키며 쏟아져 나온다. 예컨대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모시던 김류(金瑬, 1571~1648)의 아내이자 강화검찰사 김경징(金慶徵, 1589~1637)의 어머니 유씨(여성1)는 남편이 공론을 살피지 못하고 사사로이 부귀를 좋아하고 술 취해 놀기 좋아하는 아들에게 강화도 수비를 맡긴 과오를 지적하고, 김경징의 부인(여성2)은 남편이 능력에 넘치는 중임을 맡고도 강화도를 천혜의 요새로 믿고 방비를 게을리 하여 임금을 남한산성에서 내려오게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이들은 적군이 이

13) 其老也其少也, 從表可解, 而莫念先後, 亂坐高會, 其蒼黃之態悲愴之氣, 莫不有矣. (517)

14) 別有一女, 徘徊其中, 月眉星眼, 玉鬢雲鬢, 可謂仙中仙也. … 是人也, 莞爾而笑曰: “妾, 妓也. 歌之舞之, 芳名遠播, 青鳥傳信…” (531)

15) 조혜란, 앞의 글, 342쪽.

르기도 전에 자신에게 칼을 건네 자결하라고 한 아들의 처사에 대해(여성4), 자기 부인만 챙기고 어머니인 자신을 버려두어 죽게 한 아들의 처사에 대해(여성7), 국록을 받았으면서도 목숨을 연명하려고 오랑캐의 노비가 되어 체통을 잃은 남편에 대해(여성8) 회한을 토로한다. 이런 비판과 회한의 토로가 논쟁의 불협화음이 아니라 공명(共鳴)을 일으키면서¹⁶⁾ 이들 타자들을 서로 주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강도몽유록>의 타자 연대는 여성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말을 듣는 몽유자 청허선사의 존재를 주목해야 한다. 청허는 성품이 인애하고 마음이 자비로운 인물¹⁷⁾로 찾는 이 없이 방치된 강도화에 쌓인 시신들을 염해주려고 들어왔다가 꿈에 원귀들을 만나게 된다. 청허는 공수를 전하는 당골과 같은 존재인 썸인데 흥미로운 것은 청허가 선사(禪師)라는 사실이다. 이는 <최척전>에서 옥영을 이끌어주고 구해주는 장육불이나 돈우의 불심(佛心)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청허는 신분적으로 조선 사회의 타자였다. 청허는 그가 꿈속에서 만난 강도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다. 기존의 몽유록과 달리 <강도몽유록>은 승려를 몽유자로 설정하여 타자를 통해 타자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몽유자 청허의 존재성을 매개로 하여 타자들의 연대는 여성들을 넘어 호란(胡亂)에 고통당하는 조선 사회의 타자 전체로 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 강도에 들어간 청허선사의 처소가 그것이다. 청허는 연미정(燕尾亭)¹⁸⁾ 남쪽에 초막을 짓고 법사를 베푼다.¹⁹⁾ 그런데 이 연미정은 범상한 공간이 아니다.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강도를 침범하는 적들을 감시하고 막는 방어의 공간이고, 동시에 ‘멸공봉사(滅公奉私)’의 대명사인 강도검찰사 김경징이 술을 마시며 풍류를

16) 공명의 상징적 표지가 ‘言未了’와 같은 표현의 반복적 사용이다. 한 여성의 발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다음 여성이 발언을 시작하는 형식이 반복된다. 말하자면 한 여성의 말이 다른 여성들의 입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달삭거리게 만드는 형국이 펼쳐진다.

17) 寂滅寺有一禪師，名曰清虛，其性也，仁且愛，其心也，慈且悲，或見寒者，則寒者衣之，或見飢者，則飢者食之，孰不曰春風於大寒之際也?(516)

18) 강화군 월곶리 월곶돈대 꼭대기에 있는 정자.

19) 燕尾亭南，誅草爲幕，法事於斯，寢食於斯。(517)

즐기던 공간이다. 말하자면 전란의 주역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연미정이 병자호란의 주체의 공간이라면 청허의 초막은 타자의 공간인 셈이다. <강도몽유록>은 두 공간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의 주체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해버린 타자들을 구원할 존재는 타자밖에 없으며 타자들이 연대를 통해 서로 주체가 되는 길이야말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3. <운영전>은 전쟁이 배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²⁰⁾ 액자 내부에 있는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는 전쟁과 무관하다. 이런 점에서 <운영전>은 앞의 두 작품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이 조성한 수성궁의 운영이 규율을 위반하면서 수성궁에 전쟁과 방불한 팽팽한 대결상황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바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런 대결상황으로 인해 운영과 궁녀들의 강력한 연대의식이 조성되고, 이 연대를 통해 주체가 구현된다는 점에서 <최척전>·<강도몽유록>과 방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대의 경로가 두 작품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운영전>에는 안평대군이 구축한 수성궁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이 있다. 거기서 안평대군은 열 궁녀를 선발하여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물로 주조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이백과 두보 등의 당시(唐詩)를 가르쳐 5년 만에 모두 수성궁 밖의 사대부들 누구와 겨루어도 지지 않을 재원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수학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 안평의 호명(呼名)에 돌아보지 않는 궁녀가 나타난 것이다. 운영의 “멀리 바라보니 가느다란 푸른 연기 /미인은 그만 두네 흰 비단 짜는 것. /바람 맞으며 홀로 탄식하는데 /마음은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지네.”²¹⁾라는 시가 그 불교(不顧)의 표징이다. 이 시를 두고 안평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인다고 질책한다. 그러자 운영은 시를 짓는 중에 우연히 나온 표현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항변한다. 운영은 안평대군

20) 生慙而無聊，仍入後園，登高四望，則新經兵燹之餘，長安宮闕，滿城華屋，蕩然無有，壞垣破瓦，廢井頽砌，草樹茂密，唯東廊數間，巋然獨存。(334)

21) 望遠青烟細，佳人罷織絢。臨風獨惆悵，飛去落巫山。(342)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니 운영의 항변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표현된 시구에는 안평은 물론 운영 스스로도 어찌지 못하는 감정이 운영의 내부에(아니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안평은 혹독한 수련을 통해²²⁾ 욕정에 흔들리지 않는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수성궁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에는 통제 불가능한 잉여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잉여에서 발현된 시적 화자의 서러운 감정 상태를 “심궁에 갇혀 고목처럼 썩어질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기에 이른 자각의 발전 경로”²³⁾의 결과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심리 내부에 이미 있었던, 자각 이전의 ‘충동’과 같은 무의식적 자질로 보인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이 통제 불가능한 충동 때문에 운영은 수성궁의 이질적 존재가 되어 간다. 안평의 의심과 궁녀들의 염려를 한 몸에 받는 수성궁의 타자가 되는 것이다. 운영의 이런 타자성은 안평의 호명에 부응(副應)하지 않고 내면의 충동을 따라 벽에 구멍을 뚫어 김진사 앞에 사신(私信)을 던졌을 때²⁴⁾ 확인해진다.

그런데 <운영전>의 특이성은 운영의 타자성이, 운영이 김진사와 연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진이, 확산되어 나간다는 데 있다. 그 과정이 <운영전>에서 가장 정채(精彩)로운 부분이라는 점은 다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필자는 그 과정을 타자들의 연대라는 시각에서 재음미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성궁에 열 궁녀가 있지만 작품의 초반부에서 타자성이 드러나는 존재는 앞서 언급했듯이 운영뿐이다. 다른 아홉 궁녀들은 교육 받은 대로 안평대군의 부름에 합당한 응답을 한다. 이 궁녀들의 응답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운영과 김진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이다. 바로 그 대목에서 “자란(紫鸞) 또한 원망을 품고 사는 여인인지라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진

22) 常下令曰：“侍女一出宮門，則其罪當死；外人知宮人之名，則其罪亦死。(339)

23)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151쪽.

24) 夜已將闌，衆賓皆醉，妾穴壁作孔而窺之，進士亦知其意，向隅而坐。妾以封書，從穴投之。(351)

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속일 수가 없단다.”²⁵⁾라는 진술을 통해 운영과 다를 바 없는, 자란의 감추어진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운영과 자란, 이 두 타자의 만남, 둘의 공감과 배려는 결국 나머지 궁녀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수성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된다. <운영전>을 <운영전>답게 하는 것은 운영과 김진사의 전기(傳奇)적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만들어내는 타자들의 연대와 연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전>에서 타자들의 연대는 소격서(昭格署) 놀이관을 만들어 운영이 김진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자란이 남궁(南宮) 궁녀들을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남궁 궁녀들의 변화 과정에 잘 나타난다. 자란이 남궁에 찾아가 소격서행을 설득할 때 처음부터 운영을 거론했던 것이 아니다. 자란은 깊은 궁궐에 갇혀 새장속의 새처럼 탄식하는²⁶⁾ 자신들의 신세를 거론한다. 궁녀들 내면에 갇혀 있던 욕망을 자극한 것이다. 이 발언에 남궁의 궁녀들은 공감을 표시하거나 반감을 드러낸다. 반감은 물론 안평대군의 업명을 어길 수 없다는 내면의 규율에서 나온 것이다. 이 논란의 초점은 금련(金蓮)의 주역(周易) 점을 계기로 운영에게로 이동하지만 사태는 달라지지 않는데, 자란이 포기하고 돌아서려 할 즈음 다른 궁녀들에게 술잔을 권한 비경(飛瓊)이 운영의 슬픔에 공감을 표시하자 사태는 급작스럽게 역전된다. 말하자면 운영에 대한 공감과 안평대군의 금지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궁 궁녀들의 마음이 운영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내면의 욕망, 곧 타자성을 촉발시킨 힘은 서로간의 연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 연대가 결국에는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 대부분을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 물론 이들 열 명의 궁녀들이 일사분란하게 연대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주체성의 성격이 동일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일이 탄로나 서궁(西宮)의 다섯 궁녀들이 형장에 끌려나왔을 때 한 말씀만 올리고 죽겠다며 다섯 궁녀(은섬·비취·자란·옥녀·운영)가 올린 진술서, 또는 남궁의 궁녀 소옥(小玉)의 하소연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

25) 紫鸞亦怨女，及聞此言，含淚而言曰：“詩出於性情，不可欺也。”(354)

26) ……而牢鎖深宮，有若籠中之鳥，聞黃鸝而歎息，對綠楊而歎歎。(357)

체의 표징을 읽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궁의 은섬(銀蟾)과 남궁의 소옥의 말을 예로 들어보자.

은섬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에는 이 한 몸 외로운 그림자와 짝하여, 꽃을 보고 눈물을 삼키고 달을 마주해서는 슬픔으로 뉘이 나갑니다. …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깊은 마음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오직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죽을 곳에 놓였으니, 저희들은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²⁷⁾

소옥이 꿰어앉아 울며 말했습니다. “지난 번 나들이 때 성안으로 가자고 말했던 것이 본래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부탁하기에 가련히 여겨 여럿의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제가 앞장서서 그 뜻을 따랐으니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죄는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을 살려 주소서.”²⁸⁾

은섬은 수성궁의 기획이 허구임을 기획자 앞에서 진술한다. 안평은 유가적 교육을 통해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이상적인 인간(여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은섬은 그것이 타자에 대한 억압에 기초한 기획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옥은 운영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나선으로써 운영의 연애가 궁녀들의 공감을 얻은, 자신들 모두의 연애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운영 하나를 제거한다고 수성궁의 이상이

27) 銀蟾招曰：“男女情欲，稟於陰陽，無貴無賤，人皆有之。一閉深宮，形單影隻，看花掩淚，對月消魂。…一踰宮垣，則可知人間之樂，而所不爲者，豈其力不能而心不忍哉？唯畏主君之威，固守此心，以爲枯死宮中之計。今無所犯之罪，而欲置之死地，妾等黃泉之下，死不瞑目矣。”(376~377)

28) 小玉跪而泣曰：“前日浣紗之行，勿爲於城內者，妾之議也。紫鸞夜至南宮，請之甚懇，妾矜其意，排群議從之，雲英之毀節，罪在妾身，不在雲英。伏願主君，以妾之身，續雲英之命。”(378~379)

재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 궁녀들의 서로주체성은 결국 안평대군의 노기를 가라앉힌다. 다른 궁녀들은 풀어주고 운영만 별당에 가두는 모습으로. 물론 운영의 자결로 인해 이들의 연대가 보여준 주체화의 효과는 지속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연대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운영전>에는 <수성궁몽유록(壽聖宮夢遊錄)>이라는 이칭대로 몽유자(夢遊者) 유영(柳泳)이 등장한다. 유영은 전기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낙척한 지식인, 가난한 외양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소외된 지식인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타자성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운영전>의 유영은 <강도몽유록>의 청허와 마찬가지로 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는 타자라는 점에서 청허선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타자연대성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다른 면도 보인다. 유영은 청허선사와 달리 두 주인공의 비극적 이야기에 ‘두려움을 느끼는’²⁹⁾ 관찰자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화된다.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의 울울한 이야기에 감염되어 망연자실(茫然自失), 침식을 폐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는 물론 전기라는 양식적 성격의 결과이겠지만 이 동화에 서로를 주체화시키는 연대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타자화된 사유, 또 다른 연대의 형식

지금까지 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들 사이에 어떤 연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연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검토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연대의 형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텍스트 내부의 타자들과 작가 사이에 형성되는 연대의 문제이다. 작가가 텍스트 내부의 타자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과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연대하지 않았다면 <최척전>·<강도몽유록>·<운영전>과 같은 작품의 창작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29) 청허선사는 “或恐有知 隱於林下 待天之曉 乃退而出”(532)한다.

그런데 작가의 연대의식은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것은 결국 작가의 사유의 문제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 작품 가운데 작자가 밝혀져 있는 것은 <최척전> 밖에 없다. <최척전>의 작가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의 경우에도 그가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난한 경험이 있으며 의병에 참여했고, 계축화옥(癸丑禍獄, 1613)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체험이 작품에 반영된 것은 틀림없겠지만 작품 바깥에서 작가의 사유를 검토할 만한 단서는 별로 없다. 따라서 작품의 문면을 통해 작가들의 사유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력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텍스트를 통해 사유를 검토할 때 먼저 부각되는 지점은 불교이다. 불교는 <최척전>과 <강도몽유록>·<운영전>에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최척전>의 경우 불교는 옥영이 낙심할 때 꿈에 나타나 삶을 격려하는 장육불의 형상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옥영을 구원해 준 왜인 돈우가 자비심이 깊은 불교도임을 언급할 때 드러난다. <강도몽유록>의 경우 불교는 이미 언급했듯이 몽유자 청허선사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운영전>의 경우 안평의 의심 앞에서 운영이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 것으로 짐작하고는 자신의 옷과 금은보화를 팔아 부처님 앞에 공양하여 다음 생에서 연분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김진사에게 부탁하는 편지에서, 그리고 운영이 자결한 후 김진사가 청량사에서 운영의 혼령을 위로하는 불공을 드리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최척전>의 장육불에 대해서는 그간 전기소설의 낭만성(혹은 환상성)이나 사실성 문제와 관련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온 바³⁰⁾ 있지만 필자가 주목하려는 것은 불교가 지닌 타자성이고, 불교는 <최척전>이 타자들의 연대를 표현하려고 할 때 작가가 기댈만한 가장 적절한 사유였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주자학적 사유는 주체와 타자의 위치를 차별화, 위계화하고, 고정하려 한다. 주체의 위치에 화(華)가 있으면 타자의 위치에 이(夷)가 있고, 군(君)·부(夫)·장(長)이 있으면 신(臣)·부(婦)·유(幼)가 있다. 따라서

30) 연구사적 논쟁에 내력에 대해서는 김현양, 앞의 논문을 참조.

설령 주체의 처지에서 타자에 대해 배려의 마음을 발휘하더라도 주체의 위치가 무화(無化)되지는 않는다. 물론 18세기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 논쟁의 인물성동론의 시각이나, 그 연장선에서 홍대용이 보여주는 인물균(人物均)의 시각에 이르면 이런 ‘위치’에 대한 인식이 상대화되어 평등한 위치에서의 배려와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사상적 단서가 확보되지만³¹⁾ 17세기의 조위한에게 주자학적 사유는 연대를 표현하려는 작가 의식의 적절한 연장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불교는 만물의 평등에 기초한 사상이고, 주자가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비판했던³²⁾ 무연자비(無緣慈悲)를 내세우는 사상이다. 조위한이 이런 불교에 적극 공감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17세기의 전란 속에서 부유하던 타자들이 실제로 의지한 것이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였다는 점, 국가나 신분을 넘어선 타자들의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선사회에서 타자화된 사유였던 불교 외에는 달리 기댈 데가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불교적 요소의 선택은 작가가 작중 인물들에게 연대를 표시하는 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강도몽유록>과 <운영전>은 어떠한가? <강도몽유록>의 타자-여성들의 발언은 대개 유가적 대의(大義)나 절의(節義) 관념에 기초해 있다. 당대 지배세력인 유가들이 구두선(口頭禪)처럼 내세우던 관념을 통해 왜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했느냐고 반문하고, 힐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힐문을 받아줄 대상이 17세기 조선사회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무명의 작가는, 그래서 타자들의 문제제기를 들어줄 대상으로 불문(佛門)의 청허선사를 호출해낸 것이 아닐까? 물론 여기에는 승려들이 엄격매자(掩骼埋齒)에 동원되었던³³⁾ 당대의 사회적 실상도 반영되어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작가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청허를 몽유자로 작품 속에 등장시켜 타자-여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했다는 것, 다시 말해 그들과 연대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31) 인물성동이론과 주체-타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정근, 「조선 후기 주체와 타자인식의 철학적 기반 I」(『한국사상사학』27집, 한국사상사학회, 2006.)을 참조.

32)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 민족사, 2000, 331~349쪽.

33) 엄격매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성, 『기우제 등록과 기후의례』(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참조.

<최척전>·<강도몽유록>에 비해 <운영전>의 불교는 다소 형식적이다. 두 남녀의 불안한 연애 과정이나 궁녀들의 논쟁 과정에 개입하여 주인공들이나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중반부에서 명복을 빌거나 내생을 기원하는 형식으로 등장한다. 이는 김진사와 운영이 천상의 선관 선녀였다가 옥황에게 죄를 지어 지상에 귀양왔다 귀환했다는 적강소설의 상투적인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운영전>의 경우 작가의 연대가 다른 사유의 형식을 통해 발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전>의 작가가 작중 타자들과 연대하는 고리는 양명학적 사유로 보인다. 근래 정환국은 양명학의 수용이라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의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운영전>을 읽어낸 바 있는데 의미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대학』의 ‘친민(親民)’에 대한 해석을 거론하면서 “정주(程朱)가 이를 ‘신민(新民)’, 즉 백성을 새롭게 깨우친다는 의미로 해석했으나, 왕양명은 ‘친민’ 그대로 백성에게 다가감으로 보았다. ‘신’은 교훈성을 담고 있는 바, ‘민’을 타자로 구분하여 봄으로써 상하 차별성을 강조하게 되는 반면, ‘친’은 마음의 감통(感通)으로 민을 내 마음 안에서 살펴보게 됨으로써 상하 구별을 거부한다.”³⁴⁾라고 보았다. 정환국의 지적대로 양명적 사유에는 자타(自他)의 평등주의적 인식이 존재한다. 김진사와 운영의 연애에 보이는 정욕의 긍정뿐만 아니라, 앞서 예거한 은섬의 발언에 보이는 남녀의 정욕에는 귀천이 없다는 평등주의적 인식 등에서 양명학적 사유의 흔적들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이런 양명학적 사유는 당대의 이단적인 사유, 달리 말하면 타자의 사상이었다. <운영전>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는 이런 사상적 바탕 위에서 당대 사회의 타자였던 궁인·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존재의 자각을 형상화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는 동시대 허균이 궁사(宮詞)를 통해 궁녀들의 고통스러운 삶과 연대했던 것이나 <홍길동전>을 통해 서얼과 하층민들의 욕망과 연대했던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34) 정환국,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사상사의 흐름에서 본 <운영전>」, 『초기 소설사의 형성 과정과 그 지면』, 소명출판, 2005, 308~309쪽.

허균의 이런 일련의 작품들은, 이미 자세히 규명된 바와 같이 양명학적 사유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³⁵⁾ 이를 통해서도 타자 연대를 통한 서로주체성의 추구라는 17세기의 정신사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4. 전쟁과 연대, 그리고 양식의 변화

그렇다면 왜 17세기에 ‘타자들의 연대’라는 소설적 지향이 전기나 몽유록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이미 앞서 타자들의 연대를 논의하면서 주목했듯이 임병양란이라는 동아시아 전쟁과 무관치 않다. 극심한 병, 심한 굶주림, 사랑하는 자의 상실과 같은 극단적 고통 앞에서 타자의 영역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인데³⁶⁾ 전쟁이란 전쟁의 타자들에게는 고통의 극단을 경험하게 한다. 전쟁의 고통은 도처에서 타자를 양산한다. 전쟁의 시공은 타인을 타자로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를 타자로 경험하게 하는 시공이다.

타인을 타자로 경험할 때 자아가 드러내는 반응은 <운영전>의 특이한 인물 ‘특’의 경우처럼 파괴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특은 사랑에 빠진 상진의,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수룩한 모습을 보고는 재산을 탈취하고 죽일 궁리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타자에 대한 경험을 통해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할 때 ‘희망과 기쁨’이 창출된다는 것을 사적 체험을 통해, 혹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타자에 대한 이런 배려와 포용을 통해 차이를 넘어서는 일, 이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부를 수 있다. 17세기 전기(傳奇)와 몽유록(夢遊錄)의 작가들은 이 연대에서 전란을 넘어서고, 억압을 극복하는 희망을 보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연대성이 양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대목에 좀 더 주목할 필

35) 허균과 양명좌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종호, 「허균의 문예사상과 좌파양명학 성향1,2」(『한국사상과 문화』11~1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36) 박준상, 「환원 불가능한 (빈) 중심, 사이 또는 관계-타자에 대하여」, 『해석학연구』19집, 한국해석학회, 2007, 180쪽.

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은 고독하고 내면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다.³⁷⁾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애정 전기의 경우 남녀 주인공들은 서로를 발견한 후 견잡을 수 없는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혀 두 사람의 관계에 몰두하게 된다. 다른 사회적 관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두 사람의 관계만을 배타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관계에 장벽이 생기면 바로 상사병에 사로잡혀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극단적 상태로 돌진한다.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남성주인공이 이별을 경험한 후 일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이런 관계의 배타성 때문이다. 전기소설의 남녀주인공은 고독한 예외자라는 점에서 타자들이고, 이들의 사랑에 연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의 연대는 둘 이외의 다른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는 배타적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배타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타자 연대의 결과를, 앞서 언급한 서로주체성과 견주어 공동주체성³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⁹⁾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최척전>·<운영전>은 전기소설의 계보에 놓여 있지만 이전의 전기소설, 또는 17세기의 다른 전기소설들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그간 환상성의 약화와 현실성의 증대, 다시 말해 사실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지만 타자 연대성의 차이, 또는 주체성의 변모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척전>·<운영전>에서 두 주인공의 사랑은 둘을 둘러싼 다른 관계들과 배타적이지 않다. 최척과 옥영은 일국(一國)을 넘어선 타자들의 배려 속에서 사랑을 향해, 가족의 재회를 향해 달려가고, 운영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선 아홉 궁녀의 배려 속에서 사랑을 성취한다.⁴⁰⁾ 말하자면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들 서로서로를 주체화하는 것이다. 이 서로주체성 속에서 주인공들은 홀로주체 혹은 공동주체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고독함과 내면

37) 박희명, 「傳奇的 人間の 美的 特質」,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참조.

38) 김상봉, 앞의 책, 234쪽 참조.

39) 이는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 내부의 다양성을 배타시킬 때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주체성이다.

40) 여기서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운영의 자결과 김진사의 동반이라는 비극적 결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가진, 당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전기소설적 문제의식이 성취되었다는 데 초점을 둔 표현이다.

성을 상당 부분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변모는 <강도몽유록>에도 보인다. 한국몽유소설을 총괄적으로 연구한 신재홍이 서술구조, 창작동기, 독자들의 수용태도 등에 있어 몽유록의 전범이 될 만한 작품으로 꼽은⁴¹⁾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1568)을 보면 몽유자가 꿈속에서 역사적 실존인물들을 만나 토론을 벌이는데 토론자들 사이의 견해차는 몽유가 끝나도록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론에 이어지는 시연(詩宴)은 기쁨의 장이 아니라 고뇌를 토로하는 장이 된다.

<원생몽유록>에서 볼 수 있듯이 몽유록의 몽유자나 몽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역사의 주류에서 배제된 인물들, 다시 말해 소외된 인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타자라고 해도 무방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들 타자들의 만남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배려하는 만남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타자들이 시연을 벌이는 장에는 정해진 자리가 있다.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자리에서는 평등에 기초한 진정한 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강도몽유록>의 ‘난좌(亂坐)’라는 표현 속에 담긴 위계의 부정은 흥미로운 변모가 아닐 수 없다. 타자 연대의 양식적 효과라고 할 만하다. 난좌의 평등성, 평등성에 기초한 합의된 토로야말로 서로주체성의 표현이고, 그것이 몽유양식 자체의 변화를 초래한 동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 맺음

타자는 타인으로 존재할 때 타자의 위치를 넘어설 수 없다. 타인이 또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타자를 넘어 주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주체가 된다. 타자를 배제하는 서구의 주류적 전통과는 다른 동아시아적 주체 개념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화로 나아가는 데는 전기 양식의 일반적

41) 신재홍, 앞의 책, 100쪽.

인 남녀관계처럼 둘 이외의 다른 관계를 돌아보지 않는 배타적 관계도 있고, 이런 애정관계를 넘어 인간애를 바탕으로 타인들의 처지에 서로 동참하는 상호적 관계도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후자의 관계로 이뤄지는 주체성을 서로주체성이라고 부르고, 이를 통해 17세기 소설을 다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더하고자 했다.

우리 문학사에서 17세기는 언필칭 ‘소설의 시대’로 불린다. 소설의 시대를 열고, 소설의 시대를 만들어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타자들의 연대’ 역시 그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소설사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한 부분이었다. <최척전>의 최척과 옥영은 전기소설의 주인공처럼 결연을 맺지만 그들의 결연 이후의 삶은 전란으로 인해 이산과 유랑으로 내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전란으로 인해 타자의 신세로 전락한 동아시아인들의 상호 배려를 통해 삶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 <강도몽유록>의 몽유자 청허선사의 감각에 포착된 원귀들은 한의 토로를 통해 연대의 장을 만들어간다. 이들이 자신들의 시아버지, 남편, 혹은 아들을 한껏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원귀 여성들이 신분이나 나이의 고하와 상관없이 어울려 만들어낸 연대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운영전> 역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는 동료 궁녀들의 배려와 연대가 안평대군으로 상징되는 당대의 질서를 어떻게 뒤 흔드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로를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서로주체성은 이런 타자들의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타자들의 연대, 서로주체성의 획득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17세기 소설사의 한 징후임에 틀림 없다는 것, 이 징후는 양식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으며, 불교나 양명학이라는 당대의 소외된 사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그런데 타자들의 연대라는 주제는 단지 전기나 몽유록 양식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고, 17세기에 한정된 문제만도 아닐 것이다. 이미 <홍길동전>에 그런 양상이 보이고, 이는 후대의 판소리계 소설이나 <텐동어미화전가>와 같은 가사체 서사 양식에서도 두루 주제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양상들을 더 섬세하게 살펴 조선 후기 서사 텍스트들을 다시 읽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길, 2007.
- 김현양, 「<최척진>, ‘희망’과 ‘연대(連帶)’의 서사」, 『한국고전소설사의 거집』, 보고사, 2007.
- 박준상, 「환원 불가능한 (빈) 중심, 사이 또는 관계-타자에 대하여」, 『해석학연구』 19집, 한국해석학회, 2007.
- 朴熙秉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 박희병, 「傳奇的 人間의 美的 特質」,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 신재홍, 『韓國夢遊小說研究』, 계명문화사, 1994.
- 윤영해, 『주자의 선불교비판 연구』, 민족사, 2000.
- 이종호, 「허균의 문예사상과 좌파양명학 성향 1,2」(『한국사상과 문화』11~1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 장효현, 「17세기 夢遊錄의 歷史的 性格」,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출판부, 2002.
- 정출현, 「윤영전의 증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 정환국,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사상사의 흐름에서 본 <윤영전>」, 『초기 소설사의 형성과정과 그 저변』, 소명출판, 2005.
- 조혜란, 「<江都夢遊錄> 연구」, 『古小說研究』11집, 고소설학회, 2001.
- 홍정근, 「조선 후기 주체와 타자인식의 철학적 기반」, 『한국사상사학』27집, 한국사상학회, 2006.

Solidarity of others and mutual subjectivity in 17th novel

Cho, Hyun-soul

The 17th century is popularly known as 'The age of novel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opened and made this age of novels. The solidarity of others is one of them. However until now, this view point could not get much attention from the researchers of novels.

Like the protagonists of a Chuanqi(傳奇) novel, Choichoek and Okyoung of Choicheokjeon(崔陟傳) meet and marriage. But after marriage, their life is driven to separation because of the war in 17th. In this situation, they come over the crisis by mutual concern of East Asian peoples. The monk Chunghe of Gangdomonyurok(江島夢遊錄) saw a group of ghosts in Ganghua island. The ghosts made up solidarity through speaking out their Han(恨, a mixed feeling of sorrow and regret ; unique to Korea.) They could criticize their fathers-in law, husbands or sons by the solidarity they had attained as ghosts. Woonyoungjeon(雲英傳) shows well how to overcome the order of Soosung palace, through the solidarity of court-ladies.

This mutual subjectivity comes from the solidarity of others. No doubt, this kind of solidarity was never seen in the novels before 17th century.

Key Words : subjectivity, mutual subjectivity, others, solidarity, chuanqi, mongyurok, Choicheokjeon, Gangdomonyurok, Woonyoungjeon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9.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